

미래 세상 바꿀 기술의 중심엔 공학이 있다

“상상해 보자. 아침 출근길에 날씨에 맞춰 옷도 골라주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는 옷장, 주부들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통보해 주고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냉장고, 집안 청소 뿐만 아니라 반려견 밥도 챙겨주는 가정용 로봇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런 경우에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공학의 눈으로 미래를 설계하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

미래의 세상을 바꿀 중심에 공학이 있다. 세상의 작동과 변화가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공학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기술적 해법을 제시한다. 오늘날에는 융합의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인식된다.

피부에 부착해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웨어러블 전자소자, 나노 기술을 활용해 만든 투명 망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시공을 초월해 치료 가능한 마이크로나노 패치의 중심에는 공학이 자리한다.

공학적인 눈과 공학적인 사고로 융합의 시대를 전망하고 성찰한 책이 발견됐다. ‘공학의 눈으로 미래를 설계하라’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전공의 22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전기전자공학부터 컴퓨터과학 및 산업공학까지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은 공학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설명한다.

책은 공학 입문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필독서라 할 만큼 쉬우면서도 보편적이다. 산업과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사물, 사물-사물 간의 ‘연결’과 학문과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4차 산업혁명 명을 관심을 끈다. 아울러 5G로 향하는 모바일 혁명, 일상화된 로봇, 지능형 거주공간, 첨단소재의 생활용품 등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술의 면모도 흥미롭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연결의 혁신으로 장벽을 부수다’는 주어진 한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공학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인간과 다양한 영역에 놓인 장벽이 어떻게 사라지고 재편되

연세대 공대교수 22명이 들려주는 공학 기술의 모든 것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웨어러블에서 투명 망토까지

“공학은 복합적·유연하며 창의적...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플레이팜프.

는지 들여다본다. 2장 ‘지능에 대한 인간 독점을 깨다’는 지능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최근의 이슈들을 인공지능, 기계, 건축 등의 분야에서 소개한다. 공학이 바꾼 세상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게 될 모습을 전망한다.

3장 ‘근본으로 돌아가 뿌리부터 바꾼다’에서는 과학 지식 및 기술 혁신과 관련된 근본적인 내용을 조망한다. 인간의 인식능력, 데이터질, 유전자,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적 추세 등을 엿볼 수 있다.

4장 ‘다시 생각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

다’에서는 질문의 전환을 통해 건축, 컴퓨터, 생태계, 신기술 등 익숙했던 개념을 바라보고, 5장 ‘오래된 화두에 새로운 방법으로 화답하다’는 새로운 방식의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는 화학공정, 물 관리 등을 다룬다.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 ‘지능’, ‘혁신’, ‘새로운 관점’, ‘고질’ 등이다. 다층적 시각에서 공학을 접근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공학적 사고와 공학적 이해가 결여된 인문학적 사고에 대한 반성의 발로다.

한경희 교수는 “공학은 단순하고 경직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인 아이오닉(위)과 웨이모의 자율주행자동차.

것이기는 오�히려 복잡적이고 유연하며 본질적으로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 이유는 공학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학은 사회가 가진 여러 숙제만큼

나 풀어야 할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해남·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알렉산더 맥퀸

앤드루 윌슨 지음, 성소희 옮김

알렉산더 맥퀸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이다. 그의 대담한 예술 세계와 굴곡진 인생을 담은 책이 발견됐다. 영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앤드루 윌슨이 펴낸 ‘알렉산더 맥퀸’은 부와 명성도 보듬지 못한 천재 디자이너의 고뇌를 담았다.

사실 인간의 옷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해온 산물이다. 특히 20세기를 지나면서 서양식 의복이 세계화됐으며 그 흐름을 주도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각광을 받았다. 유수의 디자이너 가운데 몇몇은 뛰어난 심미안과 표현력, 예술혼으로 전설이 됐다.

알렉산더 맥퀸 역시 ‘전설’로 부족함이 없다.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타고난 미적 감각과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예술가다. 그는 기존의 관례를 거부하는 과감한 스타일링과 설치 미술을 방불케 하는 패션쇼로 찬사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지방시 총괄 디자이너를 맡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시장에 안착시키며 화려한 성공기를 써 나갔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로 세 번이나 뽑혔으며 2003년에는 대영제국 3등 훈장을 받은 사실만 봐도 그의 업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불혹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었다.

책은 맥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의 개인사와 패션계 행보, 작품에 얽힌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살핀다. 그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려는 저자의 사명감 덕분에 내용의 밀도와 완성도가 높다. 무엇보다 디자인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등 독자들이 품을 만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유투문화사·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이로운 우주

브라이언 콕스·앤드로 코헨 지음, 박병철 옮김

아프리카 평원, 캐나다 로키 산맥, 코스타리카 해변, 네팔 힌두 사원...

지구 곳곳을 누비며 만난 빛, 중력, 시간, 물질, 우주에 관한 책이 발견됐다. 차세대 칼 세이건이라 불리는 브라이언 콕스의 ‘경이로운 우주’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을 설명해주는 과학 책이다. 영국 BBC 방송국 과학팀 팀장인 앤드로 코헨도 저자로 참여한 책은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낭만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시선으로 소개한다.

우리의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는 몇 천억 개의 별들로 채워져 있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자들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우주의 섭리를 단 몇 개의 법칙으로 설명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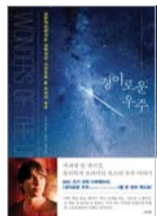
책은 큰 틀에서 보면 빛, 물질, 중력, 시간을 키워드로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미래까지 탐색한다. 마치 과거의 행적을 좇는 로드 무비처럼 과학사에 족적을 남긴 과학자와 그들의 업적도 빠짐없이 소개한다.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맥스웰의 방정식, 허블의 우주 팽창설, 우주배경복사, 빛의 스펙트럼 분석, 빅뱅, 표준모형 이론, 블랙홀, 뉴턴의 중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엔트로피의 법칙, 우주의 열역학적 죽음 등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과학 개념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책에서 모든 장소는 우주의 기원이나 속성, 우주의 작동 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소재가 된다. 이러한 여정의 한가운데서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 아름다운 장관으로 등장한다.

<해나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버지니아 울프 북클럽

이택광 지음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14편을 만난다.

탁월한 작가이자 페미니스트로 정평이 난 버지니아 울프. 울프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마음을 탐구한 소설가이자 사회 문제를 폭로한 에세이스트였다. 또 자기 주변을 섬세하게 관찰한 모더니스트인 동시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주체 생성을 위해 싸운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다.

‘버지니아 울프 북클럽’을 펴낸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울프, 즉 날카롭고 예리한 비평가이자 사상가였던 울프를 새롭게 조명한다. 지은이는 잘 알려진 울프의 소설과 에세이만이 아니라 26편에 달하는 일기까지 조사해 그의 일상과 단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를 통해 울프가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전쟁, 영국의 식민지 경영과 제국주의,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 당대의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글로 표현하고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자기만의 방’, ‘달리웨이 부인’, ‘등대로’, ‘출항’ 등 울프의 대표작을 함께 읽으며 그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에세이집 ‘보통의 독자’ 서문에서 울프는 비평가나 학자가 아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 ‘보통의 독자’를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울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울프는 과거 자신의 문제와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에게 독서를 권장했으며, 개인 출판사를 만들어 책을 출판하고 공공 도서관에 공급하기도 했다.

<휴머니스트·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기 마세요
잊혀지기 마세요
각면에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